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전주란?

전주도시혁신센터,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계획 일환으로 학생 의견 수렴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동네 마을계획 워크숍' 하가·덕진·덕일·금암·대성초 등서 열려

전주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는 덕진초등학교 강당에서 이 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지도 그리기를 통한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동네 마을계획 워크숍'을 가졌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덕진동의 현재 모습과 미래상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고 마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10개 분임으로 팀을 나누어 마을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그림에서는 덕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건지산과 가련산, 전주천 사이의 덕진동의 전체모습과 함께 △종합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하늘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인도가 없는 등갓길 △전봇대 옆의 쓰레기 △골목에 주차된 차량 등 마을 구석구석의 현재 모습들이 자유롭게 표현됐다. 또, 도서관과 문구점, 분식집, 놀이터 등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함께 그려졌다.

이에 앞서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은 지난 3일과 4일에는 하가초등학교 학생들과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오는 19일과 20일에는 덕일초등학교, 마을계획이 수립중인 금암1동과 동서학

동 소재 금암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에서도 각각 워크숍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덕진동, 금암1동, 동서학동 등 3개동에서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오며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해 오고있으며, 이번 워크숍

결과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을계획 포함을 위한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제안 될 예정이다.

진화전 덕진동 마을계획추진단장은 "덕진동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야말로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라 생각한다. 덕진초등학생들이 그려낸 마을 그림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마을의제 및 비전설정

영할 것이다"며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학생들이 동참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주민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역별 마을계획 주민총회에서는 원도심지역 각 마을계획추진단이 제안한 안건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가 덕진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지도 그리기를 통한 '청소년이 바라보는 우리동네 마을계획 워크숍'을 가졌다.

여름철 키운 면역력 겨울까지 건강하게

전주시, 흡사아한의원 후원으로 '면역 UP 프로그램' 실시 감기·천식 등에 면역력 향상·건강습관 형성에 큰 도움

전주시와 전주지역 한의원이 손을 잡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호흡기질환 예방을 돕는다.

전주시 드림스타트센터는 건강지원이 필요한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한방 프로그램인 '동병하치(冬病夏治)'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란 겨울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을 여름에 예방한다는 의미로 자연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초복, 중복, 말복)에 폐와 관련된 혈자리에 패치를 붙이고 약선음료를 복용,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한방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중앙후원기관인 흡사아한의원(원장 박상구·왕소정, 완산구 서신동)에서 삼복첩(한방패치)과 약선음료를 후원, 드림스타트 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3회에 걸쳐 출장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아동들은 약 2주의 간격으로 3차례 삼복첩을 붙이는 진료 후, 한약재를 사용한 '생맥산' 탕약 10일분을 제공받는다.

또, 호흡기질환 예방과 관련한 간단한 한방교육도 받는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기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주)흡사아한의원과 전주흡사아한의원 후원을 받아 현재까지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180여명의 호흡기 건강을 돌봐왔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노인복지관,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올바른 이용법·교통법규 등 눈높이 맞춰 교육

전주시가 자전거 안전교육 대상을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물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와 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온 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일이 많아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자전거는 차에 속함 △관련 법규 개정사항(헬멧 착용 의무화, 음주 자전거 운행 금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방법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사항 등 자전거를 탈 때 꼭 알고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교

육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우리가 어릴 적 자전거가 매우 귀했고 아버지 자전거로 다쳐가며 타는 법을 배웠다"며 "자전거가 교통법규 상 자동차와 같고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한다는 것 등은 모르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아보니 어린이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호범 시 자전거정책과장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생활자전거의 주 이용자로 자전거는 잘 타지만 사고확률도 높아 안전교육의 필수 대상이다"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10명 이상의 교육희망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팩스(063-279-4596)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562)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건설공사 지도감독·인허가 업무 전문성 'UP'

전주시, 8급·9급 기술직 공무원 대상 제4차 기술아카데미 성료 경험 적은 8급 이하 공무원 현장 지도감독 능력 높일 수 있을 것

전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토목·건축·지적·녹지직렬 등 기술직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술직 공무원 기술아카데미'를 개최, 그간 삼급 기관 감사와 건설공사 기동감할 등에서 지적되던 사항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운욱 시 기술감사팀장이 △일상감사·원가심사 대상사업 △공사설계서 작성 요령 △건설공사 현장관리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현장별 사례와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특히, 업무 경험이 적지만 기술직 업무에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8·9급 기술직 공무원들은 해당 기술 업무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는 등 적

극적인 토론을 했다.

이를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철저한 품질·안전관리,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 능력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유승수 시 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시정 추진방향 및 업무계획'과 김민호 시 도시디자인팀장의 '문화특별시 전주를 위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최공수 시 법무팀 주무관의 '행정·민사소송 대응과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최무결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 가능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SFTS 추가 사망 환자 발생

완주군 거주 80대 여성 대학병원서 치료 중 사망

독거노인·치매질환자에 대한 관리 철저 당부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유의" 긴급문자 발송 예정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오전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확진으로 8일부터 도내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8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8번째 확진환자, 6번째 사망환자이며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82세 여성으로 치매, 고혈압,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사망자는 혼자 생활하며 주변 텃밭에 자주 나가 밭일을 하는 사람으로 8일 저녁 가족이 집에 방문 시 오한으로 떨고 있어 전주시에 모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전북대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9일 오전 혈압이 저하되고 혈소판 수치도 많이 감소되어 SFTS 의심 환자로 신고 되었으며 오후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확진으로 판명 받아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 사망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치매가 있거나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방안으로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한 일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농작업 시와 휴가철 야외활동 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긴급재난 문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